

칼럼



김윤호 논설위원 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미국 민주주의의 혼란과 치유, 통합과 회복

1월 20일, 미국 제46대 조 바이든(Joe Biden, 78세) 대통령이 취임했다. 지난 해 11월 3일 실시한 대통령 선거인단 선거에서 당선된지 3개월이 다 되어가는 시간이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제도는 직접선거인 우리나라와 달라서 50개나 되는 각 주(州) 마다 법률도 다르고 투표나 개표 방식도 다르고, 선거 관련 소송이나 이의 신청과 처리방식도 달라서 복잡하다.

4년 전,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얻은 6,298만 표 보다 더 많은 7,422만 표(선거인단 232명)를 얻고도 8,128만 표(선거인단 306명)를 득표한 바이든 후보에게 706만 표차로 패한 트럼프 45대 대통령은 선거 불복 선언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08년 오바마 대통령의 6,945만 표를 넘어서 미국 역사상 최다 득표 대통령, 최고령 대통령 당선자가 되었다.

민중국가요, 최고 잘 사는 나라, 정치경제 최대 강국이다. 세계 질서와 평화를 지킨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최대 군사강국이기도 하다. 그러한 대제국(大帝國)의 민주주의의 심장이요, 민의(民意)의 본산인 의회를 수백명이 백주 대낮에 총기를 휴대하고 습격한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다. 더구나 초점전 끝에 역전승을 거둔 바이든 대통령 당선을 인준하여 당선을 확정하기 위한 법률적 절차인 상원과 하원 양원 합동회의를 하고 있던 중이었다. 시위 참가 여성도 총에 맞아 죽고, 경비하던 경찰도 응급 의료상황에서 죽는 등 총 4명 이상이 사망하고 수십명이 부상 당하고 수백명이 체포되었다.

수천 명의 극렬 시위대 집회에 마스크도 쓰지 않은채 나타나서 상·하원 합동회의가 열리고 있는 '의회로 진군하라'고 선동을 했다. 참 세상은 요지경이다. 4년 전, 엄청 똑똑한 미국 국민들은 저런 트럼프를 훌륭한 사람이라고 대통령으로 뽑아 주었다. 머리 좋고 대단한 게르만민족 독일 국민들이 히틀러를 뽑아준 것이 생각난다. 인간은 영리한 것 같지만 엄청 멍청하기도 하다. 강한 것 같지만 약점도 너무나 많다. 민족이나 국민, 국가도 마찬가지다.

주재로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통과시켰다. 공화당 하원 의원들도 상당수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4년 전,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에서 취임식을 하러 연단에 올라설 때, 펠로시 의장의 악수를 트럼프 대통령이 거절하자 펠로시 의장은 그 자리에서 바로 취임사 종이를 찢어버렸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미친 낸시'라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과 공화당 의석이 동수인 상원의 최종 표결이 1월 20일 퇴임 후에 남아 있지만, 2019년 12월과 2021년 1월 13일, 두 번이나 재임 중에 하원에서 탄핵 당하는 최초의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갖게 되었다.

리자이다. 자메이카 출신 아버지와 북 인도 출신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최초의 여성 부통령, 최초의 흑인 부통령, 최초의 아시아계 부통령이다. 이민 2세로 사회 적응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지금도 인종차별이 극심해서 경찰이 흑인은 자칫하면 총으로 쏘아버리는 미국 사회에서 자라면서 얼마나 많은 차별과 고통, 소외를 당했을까. 이제 혼란과 분열에서 치유와 통합으로 가는 바이든 시대가 열렸다.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 선언과 취임사를 모두 들었다. 트럼프 같은 오만한 권력자와 사이비 종교 광신도들처럼 그를 맹종하는 극단주의자와 백인우월주의자들이 상당수 남아 있다. 이것이 인종 차별, 코로나 방역, 빈부 격차 해소, 국민 통합, 동맹 강화 등과 함께 바이든 대통령이 직면한 무거운 숙제들이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 222-5547

독자마당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Table with 2 columns: 생활정보전화 and 긴급전화. Lists various phone numbers for services like emergency, police, and medical centers.

설 명절,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은 어떤가요?

유례없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 삶은 크게 변해가고 있다. 예를 들면 마스크는 사회의 필수품이 되었고, 대면보다는 비대면으로, 많은 활동에 제한이 따른다. 유난히도 추워진 올겨울 실내 생활 비율이 크게 높아져 갔고 그에 따라 겨울철 난방용품 사용도 크게 증가했다.

부터 나와 내 이웃을 지켜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부터 시작된다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주택용 소방시설, 이름만 들어서는 거창해 보이지만 일상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이 친숙한 설비들이 바로 주택용 소방시설이다.

용하는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보다 큰 효과가 있으며, 감지기는 유사시 화재 발생을 가장 먼저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손쉽게 찾아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보이는 주방, 거실 등에 세대별 분발 소화기 1개 이상을 비치하면 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주방, 거실, 방 등 구획된 실마다 천정에 설치하되 벽이나 보 등으로부터 60cm 이상 떨어진 중앙에, 벽에는 천정으로부터

10~50cm 이내에 감지기 중앙이 오도록 설치하면 된다. 주거시설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거주자가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에 임한다면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발생하는 인명피해 비율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곧 다가올 명절 설을 앞두고 있다. 안전과 더불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요즘 이번 명절엔 비싼 선물세트보다 3만원으로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선물해 행복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내는 것은 어떨까? 박상래/담양소방서장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Includes contact info for editorial and circulation departments.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행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애국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